

농약공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선임된
朴哲根 사장(영일화학공업주식회사)이
지난 2월 9일 농민신문, 농경과원에 등
11개 농업전문지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임 회장의
취임소감과 협회운영 등에 관한
일문일답을 들어본다.

기에는 시장상황이 어렵고 주변 경제여건도 불투명하
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매사를 회원사와 충분히 숙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지난해에 쌀생산량이 1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식량자급에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올해는 쌀 증산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
습니다. 식량증산에 있어서 농약의 역할도 적지않다고
하겠는데요 금년에 농약수급에는 문제가 없겠는지요?
“물론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자료를 보면, 쌀 자

개방화 대비 자율성 확대 필요

회원사 의견수렴 난관 극복할터
순수 국내개발 신농약 곧 첫선

● 우선 제13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0년대 들어 지속적인 농약소비 부진 등으로 농약업
계가 상당히 어려운 때에 중책을 맡으셔서 무거운 짐
을 떠맡으신 것 같습니다. 취임소감과 함께 협회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기농업 육
구증대, 무농약 농산물 선호, WTO에 따른 시장개방
등 농약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여건이 좀처럼 호전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 솔직한 심
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회장직에 취임한지 아직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만, 지난
이사회 총회에서 우리 협회의 올해 사업목표를 8가지
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원만히 수행하



朴哲根
신임회장

급률이 100%를 밑돌기 시작한 92년부터 3년간 벼 병해충에 의한 평균 감수율이 10%에 이릅니다.

이는 적절한 병해충 방제를 하면 10%만큼 쌀을 더 증수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3년간의 증수 효과를 쌀로 나타내면 9백70만석에 이릅니다. 금액으로는 2조1천6백37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병해충 방제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식량자급을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농민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우리농산물에 깊은 애정을 갖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업계에서도 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위해 농약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일로로 걸으면서 지난해에는 우리쌀을 북한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보다는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를 적극 지원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왔을 때도 벼 물바구미약 지원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만 북한측의 태도변화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산한 농약을 북한에 지원할 계기만 주어진다면 적극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의 선진화된 농업기술이 북한에 전수된다면 북한의 식량사정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지난해 12월 농약관리법이 개정공포되어 올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법의 특징은 무엇이며 국내 농약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법률은 종전 정부 주도의 농약 품목고시제를 민간 주도의 품목등록제로 바꾸어 등록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관청도 실무기관인

농촌진흥청으로 하여 행정간소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정법률은 약효, 약해시험 자료는 물론 독성, 잔류성 등 안전성 자료들도 등록회망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있어 안전성 관리는 매우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릴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전환은 환경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법과 관련하여 앞으로 국내 농약산업의 건전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약관리체제를 정부의 관리감독과 기업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로 하위법 개정시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안전성 검토와 등록을 제외한 약효, 약해, 급성 독성, 잔류성 등 시험관련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업계의 기술개발능력 배양은 물론 불필요한 시험과 행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임이 따르는 자율성을 가급적 확대해야만 개방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최근의 농약개발은 환경 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신물질 개발이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개발 현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최근 자료를 보면 농약 한 품목을 개발하는데 평균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개발확률도 2만분의 1에서 3만분의 1에 불과하고 1천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신물질 개발이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개발비용도 대략 30%가 독성 등 안전성 시험에 투입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전성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들어 세계각국은 저독성이며 적은 사용량으로도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선택성이 뛰어난 농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 유전공학기법을 이용한 생물농약의 개발과 실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농약제조회사들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시험연구를 통해 생물농약 및 안전성이 높은 제형의 농약을 꾸준히 자체개발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화학연구소와 같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공동연구하는 등 신농약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순수 국내기술에 의해 개발된 국산 신농약 1호가 금년중에 고시될 예정으로 있어 국산 신농약 개발은 이제부터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 **현대농업에서 농약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평가되지만 잘못사용에서 오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안전사용 계도가 우선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전사용계도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세계인구 증가와 경지면적 감소는 단위면적당 농산물 증산요구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 21세기의 식량난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재배작물의 품종개량이나 재배기술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34%에 달하는 병해충과 잡초에 의한 감수로부터 농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약이 식량증산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잘못 사용함으로써 오는 특수한 유형의 부작용이 마치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주변의 불리한 여건들 때문에 농약산업이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점들을 감안해서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농산물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살포자 자신을 보호하며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주변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전사용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더구나 이같은 일들은 업계의 힘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품질높은 식품소비를 위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농약에 대**

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서는 이에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요.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고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이며 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추측이나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약이라면 무조건 해로울 것이라는 선입관으로 농약에 관한 각종자료에서 농약의 플러스(+) 측면은 배제한 채 마이너스(-) 측면만 부각함으로써 이같은 과민현상이 증대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농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연유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기자 여러분과 원활한 정보교환은 물론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홍보물도 제작보급할 계획입니다.”

● **농약산업을 일부에서는 사양산업이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90년을 고비로 사용량이 정체 내지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농약산업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우리나라 농약사용량은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합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분량으로 약 2만6천 M/T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정도선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외신보도에 의하면 흑서, 흑한, 가뭄, 홍수등 기상이변과 함께 세계의 곡물시장은 매우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서『식량의 무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농경지에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종개량, 경종법개선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농약산업은 환경조화형 농약개발 등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농약을 무척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일본에 비해 단위면적당 사용량이 훨씬 적습니다.” **농약정보**